

기술철학적 관점에서 본 SF 성장소설과 인간-비인간의 앙상블*

— 천선란의 『천 개의 파랑』을 중심으로

진 선 영**

요약

본고는 기술철학적 관점에서 천선란의 『천 개의 파랑』을 연구대상으로, 인간과 기계(비인간)의 새로운 관계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기계와 인간의 공존을 긍정하는 시몽동의 기술철학적 사유와 개체화론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가 보여주는 양립 불가능하고 불일치하는 것들(인간과 비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관계성은 기술과 인간이 함께하는 서사를 통해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과 다른 새로운 휴머니즘을 꿈꾸게 한다.

소설의 초반부에서 인간과 비인간을 매개하는 기술적 개체(기계) C-27은 동물과 로봇, 두 비인간 개체를 매개하였다면, 콜리로서시 삶에서는 개체를 관통하는 인간과 비인간과의 연대가 이루어진다. 기계를 만지고, 부품을 조합하고, 설계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때 가장 빛나는 인간 우연재는 기술적 대상과의 연합(소프트웨어)을 통해 발명가-기술적 주체로 거듭난다. 연재가 보여주는 '영 어덜트(Young Adult)'성은 기술적 앙상블을 구축할 줄 아는 새로운 휴머니즘 '발명가-기술자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소환하기에 다분히 SF적 성장소설이라 할 만하다.

시몽동의 존재론이자 인식론을 대표하는 개체화론의 핵심은 독립성이 아니라 관계성에 있다. 경주마를 주로에 세우기 위한 휴머노이드(기술적 개체)와 자매의 파트너십은 설득과 동맹을 무기로 우호적 환경을 넓혀간다. 생명의 호흡을 함께 느끼며 스스로를 경주마의 파트너라고 말하는 휴머노이드, 기계의 통역자이자 조정

* 본 논문은 2022년 한국현대소설학회 전국학술대회 (주제:1990년대의 역사화3-1990년대 장르와 독자, 2022.06.11)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교수

자인 발명가-기술적 주체, 동물을 유일한 친구로 둔 장애를 지닌 소녀, 경마장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묶이면서도 동물권을 사수하는 수의사, 공익과 생명권 사이에서 생명권을 선택하는 언론인은 기술적 대상을 매개로 경주마를 살리기 위한 연합 환경(milieu)인 것이다. 기술적 개체가 존재론적 기반을 넘어 초월적 연대를 조직화할 수 있는 근거는 정서적 감동에 있다. 기술적 개체와 인간의 연대, 인간-비인간의 양상블은 결국 안락사를 앞둔 경주마의 생명을 지켜주자는 청원으로 이어져 투데이에게 진짜 초원을 선물하는 계기로 이어진다.

주제어: 천선란, 천 개의 파랑, SF 성장소설, 기술철학, 시몽동, 인간-비인간, 양상블

목차

1. 들어가며 :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느냐”
2. 기술적 개체와 발명가-기술적 주체의 탄생과 성장
3. 자연-기계-인간, 이중적 개체의 연합 환경(milieu)
4. 개체 초월적 관계와 정서적 감동
5. 나오며

1. 들어가며 :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느냐”

감염병의 유행은 우리에게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새로운 기준과 보편을 고민하게 하였다. 세계적 금융 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 질서를 지칭하던 뉴 노멀은 팬데믹을 지나면서 다시 탈세계적 화두가 되었는데 이 전보다 더 많은, 더 빠른 변화와 속도를 요구했다. 변화된 세계를 지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근거에는 인간의 삶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손쉽고 여유롭게 만드는 기술 혁신이나 디지털 전환과 같은 패러다임이 자리 잡고 있다.

새시대의 도래를 상징하는 기술적 진화는 단순히 외부 환경의 변화만

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이 자연에 작용해 사물을 생산하는 방법 또는 목적을 실현하는 수속을 의미하는 기술의 사전적 정의만 보아도 기술의 변화는 인간 활동의 변모이자 기술과 인간 간의 관계 변화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학이나 기술 발전이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사회에서 인간은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이다.

과학기술 시대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향상시킨 양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역할과 민주화나 전지구적 공동운명체에 대한 성숙된 인식을 가능케 한다는 면에서 유토피아적 희망을 실현시켜줄 바람직한 도구로서 인식되었지만 반면 기술사의 한 분기점에서 발생하는 인간 소외의 문제와 기술 자원에 인간적 감정을 투사한 공포감의 문제 또한 여전히 병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기술에 대한 논의가 기술적 비관주의(technophobia)나 기술적 낙관주의(technophilia) 사이에서 우려와 찬탄을 표방하는 데서 그치는 것은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다. 새로운 정보 기술의 등장과 더불어 기술을 매개로 하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발전적 이해가 필요하고 탈인간중심적인 새로운 휴머니즘 모델이 절실하다. 이제 우리는 인간보다 보철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 나의 앞자리에는 사람이 아닌 휴대폰이나 노트북이 놓여 있다.

인간과 기술의 새로운 관계성에 대한 문제풀이를 문학으로서 해답을 구하고자 함은 이야기의 힘이 갖는 정서적 효과와 이야기 밖으로 행동을 이끌어 내는 실천력 때문이다. 최근 기술 혁신 시대의 문학으로서 한국 SF소설의 인기와 대두는 이러한 현상을 반증한다. SF소설은 “과학과 기술상의 발견이 인간의 사회생활과 철학적 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심하는 문화적 양식”¹⁾이자 미래의 문제에 대한 사고 실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세릴 빈트, 『에스에프 에스프리』, 전행선, 정소연 옮김, 아르테, 2019, 12면.

인간과 기술의 관계성을 탐사할 때, 기술의 형태들은 다양하고 변화 가능하지만 기술 그 자체가 없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구성을 벗어나서 기계를 이해하고, 인간과 기계가 특권 없이 동등한 수준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므로 기술철학의 핵심을 이룬다.²⁾ 본고는 기술철학적 관점에서 인간과 기계(비인간)의 새로운 관계성과 휴머니즘을 요청하는 작가 천선란에 주목하고자 한다.

작가 천선란은 최근 한국 SF의 동향과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젊은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³⁾ 천선란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자신의 소설 세계를 쌓아 올린다. 이때의 목적의식이란 소설의 주제 의식이나 작가의 세계관이기도 하고, 장르적 글쓰기에 대한 뚜렷한 자각과 의도라는 측면을 내포한다. 이렇게 빌드 업(build-up)된 글쓰기는 하나의 작품으로 완결되는 닫힌 세계가 아니라, 첫 창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천선란포 유니버스(universe)를 구축했다.

천선란은 등단부터 현재까지 4년의 기간 동안 5편의 단행본을 꾸려냈고 여러 작가와 협업하여 묶어낸 SF 앤솔로지 또한 만만치 않다.⁴⁾ 2019년 출간한 첫 장편소설 『무너진 다리』⁵⁾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할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하여 인류 멸망 후 인간

2) 에른스트 카프, 『기술철학 개요: 새로운 관점에서 본 문화 생성사』, 조창오 옮김, 그린비, 2021.

3) 유슬기, 「SF계의 경이로운 소문 《천 개의 파랑》 작가 천선란, 하나의 파랑이 되어」, 『topclass』, 2021년 6월호, <https://topclass.chosun.com/>, 접속일, 2022.4.22; 전우용, 「작가들이 사는 마음 한국 SF 소설의 떠오르는 샛별 ‘천선란’」, 『NEWS N BOOK』, 2021.12.24., <http://www.newsbook.com/>, 접속일, 2022.1.22.

4) 「서프 비트」, 『슈퍼 마이너리티 히어로』, 안전가옥, 2020; 「푸른 점」, 『저기 인간의 적이 있다』, 아작, 2021; 「초인의 나라」, 『나와 명들의 세계』, 황금가지, 2021; 「뿌리가 하늘로 자라는 나무」, 『우리는 이 별을 떠나기로 했어』, 허블, 2021; 「두 세계」, 『책에 갇히다』, 구픽, 2021; 「옥수수밭과 형」, 『2035 SF 미스터리』, 나비클럽, 2022.

5) 천선란, 『무너진 다리』, 그래비티북스, 2019.

과 기계(안드로이드)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국내 SF 아포칼립스의 정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 2019년 한국과학문학상 장편 대상을 받은 『천 개의 파랑』은 “동식물이 주류가 되고 인간이 비주류가 되는 지구를 꿈꾼다.”⁶⁾라는 말로 작가 의식을 응집하고 있다. 평론가 이지은은 『천 개의 파랑』이 휴머노이드와 인간, 휴머노이드와 동물, 그리고 월체를 탄 인간과 경주마의 우정을 교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성과 중, 정상과 비정상의 구획을 가로지르며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 맺기 방식을 바꾸었다고 평가하였다.⁷⁾

2020년 첫 단편소설집 『어떤 물질의 사랑』⁸⁾에 대해 양윤의, 차미령은 SF와 페미니즘의 연결점에 주목하여 비인간 행위자들을 연구하였다. 천선란 소설 속에 등장하는 비인간 존재들은 젠더나 인간 분할을 넘어서는 타자 되기, 사이보그적 행위를 모색함으로써 포스트 젠더, 포스트 휴먼의 가능성을 탐구한다고 보았다.⁹⁾ 2021년 출간한 『밤에 찾아오는 구원자』¹⁰⁾는 뱀파이어가 주인공인 로맨스 판타지 장르인데, 뱀파이어라는 비인간, 비주류의 존재가 사회에서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보여준다. 가장 최근작인 『나인』¹¹⁾은 인간과 섞여 살면서 식물과 소통하는 외계인의 이야기를 다룬 영 어덜트(Young Adult) 장르이다.

앞선 연보에서 포착할 수 있는 천선란 소설의 특징은 인간/비인간이 주인공인 캐릭터성에 있다. 특히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류의 로봇이나 동물, 외계인, 뱀파이어, 식물 등 인간과 관계성을 이루는 비인간의 범위

6) 리디, 「〈천 개의 파랑〉 작가 천선란 인터뷰, 나의 글이 누군가에게 울 수 있는 핑계가 되었으면」, 『brunch』, 2020.12.31., <http://www.brunch.co.kr>, 접속일, 2022.5.28.

7) 이지은, 「위기의 지구에서 빗장bar 옮기기」, 『문학동네』 107호, 문학동네, 561-567면.

8) 천선란, 『어떤 물질의 사랑』, 아작, 2020.

9) 양윤의, 차미령, 「천선란 소설에 나타난 ‘비인간’의 가능성-페미니즘과 SF의 동맹에 주목하여」, 『현대소설연구』 8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233-262면.

10) 천선란, 『밤에 찾아오는 구원자』, 안전가옥, 2021.

11) 천선란, 『나인』, 창비, 2021.

는 실로 다양하다. 대부분의 SF소설에서 로봇은 인간의 자리를 빼앗고 주인이 되려 하였고, 외계인은 지구를 침략하는 낯설고 두려운 대상이었다. 인간과 함께 지구 속에 공존하는 비인간은 자신을 위장한 채 언제나 배신의 기회를 포착하는 존재들이었고 지구 밖에서 존재하는 비인간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비인간으로서의 동물과 식물은 유희적 대상이거나 환경의 일부였다. 이러한 발상은 다분히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결과물로 근대적 이분법에 따라 인간 주체와 그 밖의 타자로 호명되었지만, 천선란은 비인간 존재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고 이들을 인간사의 우화나 알레고리로 환원하지 않는다.

작가는 『천 개의 파랑』에서 세상사 모든 것을 전부 이야기하고 싶다는, 공모 작가로서의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작가의 꿈은 동물권, 로봇권, 환경 문제 등의 담론이나 여성 삼대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젠더사와 인간 내에서도 주류와 비주류의 문제, 장애인 이동권 등 소설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의 갈피를 갖게 한다. 작가는 이를 위해 전지적 시점이 아닌 다성의 목소리가 드러날 수 있는 구조를 취하는데, 하나의 사실에 대해 인물 각자의 목소리가 발화되면서 사건이 입체적으로 조명되고 인물의 내면에 공감할 수 있게 된다.

이 작품의 중심에는 휴머노이드 기수 ‘콜리’가 있다. 콜리는 인간과 자연을 매개하는 기술적 대상의 특징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의 연합을 중개한다. 낙마하여 폐기를 앞둔 휴머노이드 기수 콜리는 안락사가 확정된 경주마 ‘투데이’를 살리기 위해 평범하지만 특별하고 용감한 인간 ‘우연재’, ‘우은혜’와 연합하는데, 동물(자연)과 로봇(기계)와 인간이 만들어가는 기적 같은 이야기는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 협력하는 상상력을 보여준다.

본고는 인간과 기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방법론으로 질베르 시몽동 (Gilbert Simondon)의 기술철학적 사유와 존재론의 중심인 개체화론 (individuation)을 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시몽동의 철학은 전통적인 철

학에서 개체가 단일성, 통일성, 독립성이 잘 드러나는 생명체를 중심으로 사유된 데 반해 유기적 생명체를 특권화하지 않고 오히려 비유기체를 포함하여 개체화 모델을 성립시킨다. 그의 기술철학은 기술적 개체(기계)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식화를 촉구하면서 기계와 인간의 공존을 긍정한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지점은 독립된 개체의 존재성이 다층적인 관계망 속에서 생성되고, 양립 불가능하고 불일치하는 것들(인간과 비인간) 사이를 연결하고 소통하는 관계성에 방점이 놓인다는 것이다.¹²⁾

전통 철학에서 형상과 질료를 이분화하여 주종 관계로 파악한 것과 달리 모든 형상(능동적으로 지배하는 것-주인-인간)과 질료(수동적으로 지배를 받는 것-노예-자연)를 개체로 설정하면서 이들의 발생과 분화, 다시 집합을 사유하는 시몽동의 사유는 기술과 문화의 영역을 논의함에 있어 구분과 분리의 이원론적 사고가 아닌 유비적이고 종합적인 통찰을 향해 나아가는다.¹³⁾

본 장의 제목인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느냐”¹⁴⁾ 라는 질문은 이 소설의 중심인물 우연재가 받은 질문이다. 로봇 분야에서 영특했던 연재는 소프트웨어 연구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어려운 시험을 일순위로 통과한 연재에게 마지막으로 심사위원들

12) 홍성욱은 시몽동의 기술적 개체화론이 전통적 기술철학과 변별되는 흥미로운 논점 세 가지를 언급한다. “첫 번째는 시몽동이 기술적 요소가 합쳐져서 개체가 되는 과정이 외적인 필요 때문이 아니라 내적인 필연성 때문이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기술은 추상적인 요소의 양태에서 구체적인 기계의 양태로 구체화되는데, 그는 이런 과정이 내적 논리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는 기술적 양상블은 기술만이 아니라 인간과 문화를 포함한다는 것이었다. 이 양상블 속에서 기술과 인간은 대등한 관계를 맺으며 양상블의 연결망을 만들어 내는 존재이다. 마지막으로, 양상블은 다시 다른 기술적 요소를 만들어 내는 토양으로 기능했고, 따라서 기술의 개체화는 순환하면서 진화하는 과정을 그리는 것이었다.”, 홍성욱, 『포스트휴먼 테크놀로지』, 『인문학연구』 35,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1, 3-35쪽.

13) 본고의 연구방법론은 시몽동의 박사학위 주논문과 부논문을 번역한 두 저작을 바탕으로 한다. 시몽동,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 김계희 옮김, 그린비, 2011; 시몽동,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 황수영 옮김, 그린비, 2017.

14) 천선란, 『천개의 파랑』, 허블, 2021, 46면.

이 던진 질문이다. 모든 지원자가 정해진 모범 답안을 읽듯 유려하게 대답했지만 연재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함으로써 꿈을 포기해야 했다. 소설 『천 개의 파랑』은 연재가 가능성 밖으로 내쳐진 이후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면접장이 아닌 삶에서 찾아가는 서사를 보여준다. 기술과 인간이 함께 하는 서사는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과 다르기에 우리는 새로운 휴머니즘을 꿈꿀 수 있다.

2. 기술적 개체와 발명가-기술적 주체의 탄생과 성장

소설은 휴머노이드 기수 ‘C-27’이 콜리라는 이름으로 6개월 동안에 겪었던 일을 말하고 싶다는 에필로그와 “이건 이야기의 결말이자, 나의 최후”¹⁵⁾라는 프롤로그가 병합되어 시작된다. 제2의 꿈의 나라 경마장은 대대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하여 경마 열풍을 되살렸다. 경마 경기의 최대 약점은 말의 속도를 줄이는 인간 기수 때문이었는데 휴머노이드 기수는 가볍고 낙마하면 폐기하고 다른 기계로 대체하면 되었기에 경마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휴머노이드 기수 C-27은 주로에 선 말이 최대한 기수의 존재를 느끼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C-27은 인간의 실수로 학습 휴머노이드를 위한 인지와 학습 능력을 넣어둔 칩을 장착하고 경마장에 납품된다. C-27은 대량 생산되어 납품된 일반 휴머노이드 기수와 달랐다. C-27은 처음 투데이와 호흡을 맞춘 날 경마 관리인의 행동을 따라 말의 목덜미를 토닥이며 교감하였고, 하늘과 나무와 구름을 관찰하며 자연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고민하였다. 관리인으로부터 경마라는 스포츠가 인간에게 주는 즐거움을 알게 된 C-27은 힘차게 달리는 투데이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15) 『천개의 파랑』, 9면.

생각하며 투데이와 함께 자신도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느낀다.¹⁶⁾ 하지만 둘의 호흡이 좋아질수록, 채찍질의 강도가 세 질수록 순위는 좋아졌지만 행복하지 않게 되었고 투데이와 함께 무너졌다. C-27은 빠른 속도로 완주해야 한다는 휴머노이드 기수로서의 존재 이유와 함께 호흡하는 투데이의 고통 속에서 고민했지만 투데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포기하면서 1막은 끝난다.

시몽동의 개체화론에 따르면 C-27은 기술적 개체이다. 현존하는 기술적 개체는 처음부터 불변하는 형태로 주어진 실체가 아니라 요소들의 구성과 요인들의 관계 내에서 서서히 그런 형태로 개체화된 것이다. 개체화되기 이전의 전개체적 실재는 잠재적 에너지로 가득해서 바뀔 가능성이 많은 것인데 외부에서 정보를 수용하여 개체화를 촉발시킨다. 개체화를 실현하게 해주는 교환이자 공명의 양상인 정보는 어떤 사건이나 충격으로서 구체적인 질을 갖고 수신자와 송신자의 상호 관계 속에서 시스템 전체의 새로운 구조화를 야기하는 작용이다.

C-27은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 만들어진 부품으로 조립되어 대전에서 탄생하였고 마지막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칩이 잘못 삽입되면서 함께 납품된 휴머노이드와 전혀 다른 개체가 되었다. 각각의 요소가 기능적으로 결합된 C-27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헤아리는 퍼텐셜 에너지로 가득차 있는데 경주마 관리자인 도민주를 통해 인간과 동물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면서 그 형질이 변환된다. 전개체적 실재에서 개체로 변환되는 과정을 말하는 개체화는 개체의 발생, 진화와 더불어 이 과정에서 고유한 진화적 환경, 조건이 형성되는 진행 과정에 집중한다.

16) 투데이가 행복해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콜리는 투데이가 행복하다면 자신도 행복한 거라고 정의내렸다.(중략) “투데이가 달리는 순간만큼은 저도 호흡하고 있어요. 투데이의 호흡에 맞춰서...” (중략) 투데이의 등에 앉아 달릴 때마다 콜리는 숨을 쉬었고, 호흡이 생명의 특권이라면 콜리는 그 순간만큼은 생명이었으며 생명은 살아 있는 존재라는 뜻이었다. 콜리는 살아 있었다. (『천개의 파랑』, 28면.)

해가 떠올라 밝아진 세상을 보며 ‘찬란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개수를 세며, 좁은 기수 방에서 더디 흐르는 시간을 헤아리며 투테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C-27은 인공물도 자연물도 아니다. 천 개의 단어를 떠올리는 C-27은 대답하는 기계가 아니라 질문하는 개체이며, 인간이라면 하지 않았을 질문을 인간에게 던지는 사유하는 개체이다. 기술적 대상은 마치 생명체처럼 그 나름의 진화 과정을 겪는데 진정한 기술적 개체로서 C-27은 비결정성과 외부 정보에 열린 시스템으로 개체를 넘어서는 관계를 만들어낸다. C-27의 1막은 동물과 로봇, 두 비인간 개체의 관계를 다루었다면 2막은 연재와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개체를 관통하는 인간과 비인간과의 연대와 인간과 자연을 매개하는 기술적 개체의 상상력이 협연된다.

연재의 서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서비스직 업무용 휴머노이드 ‘베티’가 대체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거리의 수호신 ‘스트린’은 구청 청소원들을 대체하였고 경찰관이 스무 명 넘게 잘리고 그 자리에 경비 휴머노이드 ‘폴리’가 들어왔다. 재난구조용 소프트 로봇 ‘다르파’는 소방관을 대체하였고 은행원이었던 보경의 모친은 휴머노이드 보급화의 풍파를 맞아 퇴직하게 되었다.

연재는 로봇 개발자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등학교 때 실패의 경험과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무덤덤한 삶을 살아간다. 베티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돌아오는 길에 스카프를 먹고 구토를 하고 있는 스트린을 고쳐준다. 자신의 손길이 스트린의 고통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연재는 기술적 대상에 대해 생명체로서의 감각과 보철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수리하는 기술력을 가진 인간이다. 그리고 하반신 장애를 지닌 언니 은혜를 데리러 간 경마장에서 낙마하여 폐기처분을 기다리는 C-27을 만나 강렬한 끌림과 삶의 열정을 되살린다. 기술적 대상으로서 C-27 또한 연재의 호기심 어린 눈동자로부터, 그녀의 호흡으로부터 그녀가 자신의 구원자이며 자신의 세계가 될 것이라고 느낀다. C-27에게 콜리라는 이름

을 붙여준 연재는 콜리의 낙마가 기계적 결합이 아닌 자발적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표면은 차갑지만 내면은 뜨거운 콜리의 제안에 따라 투데이를 구하고자 한다.

기술적 개체(콜리)에 따르면 연재는 기계를 만지고, 부품을 조합하고, 설계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때 가장 빛나는 인간이다. 시몽동은 기계를 지배의 수단이나 허구적 기교의 산물이 아닌 기술성이 개체 수준에서 구현된 기술적 대상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기계의 관계를 사유하면, 인간은 기계의 지배자가 아니라 기계들을 연결시켜주는 살아있는 통역자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기술적 대상들의 상설 조직자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¹⁷⁾ 이러한 관점에서 연재는 기계의 경쟁자가 아니라 연장들의 운반자, 기계들 사이의 양립 불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체, 기술적 대상들의 발명가이다.

경주에서 낙마하여 하반신이 부서진 콜리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연재는 애써 외면한 ‘차세대 다르파를 주제로 한 전국 고등학생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서지수는 자신의 아버지가 휴머노이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의 사장이라는 것, 대회용 휴머노이드를 제작할 때 일정 부분 콜리를 위해 부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미끼로 연재와 함께 대회에 출전할 것을 제안한다. 각각 콜리의 수리 부품과 대학 입시의 가산점을 받기 위해 참가한 휴머노이드 발명 대회에서 연재와 지수는 일상에서 가능한 다르파를 발명하기로 한다. 연재는 장애를 가진 은혜의 다리가 되어 주지만 또 다른 의미의 부자유를 만들어내는 휠체어를 주제로, 바퀴의 모양이 평상시에는 원형을 유지하지만 장애물의 형태에 따라, 가령 계단을 만났을 때 계단의 모양으로 형태가 변하는 바퀴가 달린 ‘소프트휠-체어’를 발명하고자 한다. 자유롭게 변형되는 바퀴(기술)는 인간에게 자유로움을 선물할 것이다.

17) 강진숙, 「포스트휴먼 담론의 사유와 미학적-윤리적 역량 연구:시몽동과 들뢰즈, 파타리의 인간-기계 사유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2, 한국언론학회, 2018, 385-414면.

“인류 발전의 가장 큰 발명이 됐던 바퀴도 다시 한 번 모양을 바꿀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바퀴가 고대 인류를 아주 먼 곳까지 빠르게 데려다 줬다면 현 인류에게도 그렇게 해 줄거라 믿어요.”¹⁸⁾

인간은 존재하면서부터 도구를 만들어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했다. 인간 진화의 물리적 증거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자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것을 만들어 내어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창작기술이다. 드보어는 발명을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무엇을 산출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지식과 경험의 결합을 통한 창의적인 정신 과정”이자 여기에는 “물리적 형태와 함께 사회적 형태나 정신적 개념이 포함”된다고 하였다.¹⁹⁾

시몽동의 기술철학에서도 발명은 세계와 관계 맺는 인간의 기술적 활동으로서 본질적인 것이며 동시에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론적 조건이라 규정하였다. 발명은 인간을 매개로 한 기술적 대상들 사이의 관계 맺음이자 동시에 기술적 대상들을 매개로 한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기도 하다. 따라서 발명은 인간과 기술적 대상의 상호 협력적 지점으로서 기술 진화의 계기이면서 사회 진화의 계기이기도 하다.²⁰⁾ 기술의 조정자이자 새로운 기술적 대상의 발명가인 연재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노동에서 기술적 활동으로 전환시켰다. 연재는 기계들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며 책임지는 존재로서, 발명을 통해 인간과 기계의 협력적 공진화를 창조한 발명가-기술적 주체로서 새로운 휴머니즘을 모색케 한다.

보철을 수리, 조정하는 정도의 기술을 가진 인간이 기술적 대상의 매개와 연합을 통해 발명가-기술적 주체로 거듭나는 이 작품은 다분히 SF적

18) 『천개의 파랑』, 338면.

19) 정진우, 김창훈, 김지숙, 「실과 교과서 '생활과 기술' 단위 발명 교육 내용 분석」,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8, 한국기술교육학회, 2018, 103-122면.

20)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아가넷, 2017, 114면.

성장소설이라 할만하다. 성장은 삶의 경험들로 인해 성숙해지고 다듬어지는 시간적 과정을 총칭하며, 성장소설은 주인공의 변화를 유도하는 성장 촉매를 통해 미성숙의 자아가 성숙한 자아로 변모하는 과정을 다룬다.²¹⁾ 이러한 성장소설의 성격이 SF라는 장르적 속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그 성장 촉매로 사용되어야 한다. 연재의 가족에 대한 무관심은 가족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불행을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방어기제였는데 기술적 개체로서의 휴머노이드는 단절된 가족의 결속을 매개하고, 언니를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든 발명품은 기술적 활동의 진화와 함께 성숙한 자아로서 인식의 성장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천선란은 자신의 작품 상당수가 영 어덜트(Young Adult) 장르로 범주화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²²⁾ 이는 성장소설의 다른 이름이다. 영 어덜트란 연령대로 보았을 때 청소년이나 이제 막 성년이 된 사람을 가리키고 출판계에서는 청소년과 청년이 주요 소비층인 작품을 지칭한다. 연재가 보여주는 ‘영 어덜트’성은 기계들의 조율과 관계를 조직하며 기술적 상상력을 구축할 줄 아는 새로운 휴머니즘 ‘발명가·기술자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소환한다.

3. 자연-기계-인간, 이종적 개체의 연합 환경(milieu)

기술적 개체인 휴머노이드는 발명가 주체의 탄생만을 매개한 것은 아

21) 박은영, 「성장소설의 서사모형을 통한 황순원 소설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11, 11-17면.

22) 천선란은 “영 어덜트(Young Adult)라고 하면 청소년 성장소설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외국에서는 10대 후반~20대 초반 나이 주인공이 성장하는 이야기”이며 “학생, 어른 상관없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배훈식, 「[인터뷰] 천선란 작가 “학교 폭력, 아이 주변 어른들에게는 왜 죄 묻지 않나”」, 『NEWSIS』, 2021.12.12., <https://newsis.com>, 검색일, 2022.4.22.

니다. 콜리가 연재의 집에 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콜리의 표현에 의하면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르고 독특한데 연재의 엄마 보경은 “분홍보라 같은 인간”으로 “경마장의 에이스 경주마”처럼 “쉬지 않고 빠르고 세다.” 보경은 미래를 빛낼 배우로 성장하던 중 화재 사고로 연기를 그만두게 되었고 자신을 구조한 소방관과 결혼하여 은혜와 연재를 낳았다. 하지만 은혜는 일곱 살 되던 해 바이러스 침범으로 인한 수족 마비로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고 남편은 화재 사고 구조 도중 사망하였다. 보경은 식당을 운영하며 어렵게 두 딸을 키웠지만, 긴 병은 가족 사이의 부채를 만들었고 모녀는 서로의 상처를 숨긴 채 각각의 공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보경은 연재가 몰래 데려온 콜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지만 처음 들어간 연재의 방에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휴머노이드와 사사로운 것까지 말을 섞으면서 거부감을 견어낸다. 보경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콜리의 들을 수 있는 귀와 끄덕일 수 있는 고갯짓으로 극복되었고 “딸들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보경의 상태를 콜리가 알아봤다.”²³⁾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귀와 고개를 가진 개체는 단절된 세 모녀의 이어진 다리가 된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콜리를 통해 연재의 꿈과 희망을 보게 된 보경, 보경과의 대화를 연재에게 들려줌으로써 엄마의 삶을 이해하게 된 연재, 엄마가 출현한 영화를 함께 시청하는 보경, 연재, 콜리의 모습은 기술적 대상으로 매개되는 새로운 공동체적 실재를 그려보게 한다. 시몽동은 기술적 개체가 파편화된 인간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여 개체를 넘어서는 소통과 공감을 조직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간과 기계 사이에 탈인간중심적인 상호 협력을 맺는 것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휴머니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시몽동의 연합 환경에서 환경을 뜻하는 밀리유(milieu) 개념은 공기나

23) 『천개의 파랑』, 270면.

분위기 그리고 생명체를 묶어주는 상황 혹은 환경과 같은 것이다.²⁴⁾ 은혜가 경마장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4년 전부터였다. 아동의 자유가 없는 은혜에게 투테이가 갈기를 휘날리며 질주하는 모습은 자신의 소망이 대신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보통의 사람들이 은혜를 바라보는 측은한 시선과 달리 콜리에게 은혜는 기구(휠체어)를 능수능란하게 움직이는 신기한 인간이었으며 힘차고 능동적으로 보였다.

콜리가 투테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투테이를 다시 주로에 서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투테이는 경마장에서 상태가 가장 심각한 쓸모없는 말이었기에 투테이를 다시 주로에 서게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자 수명을 단축하는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콜리는 투테이가 마방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로를 달릴 때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주로에서 달리지 않고 가장 천천히 걷는 경마를 제안하였고, 출전권을 따내기 위해 관련자들을 설득한다. 삶의 시간을 안락사 당하는 이들에게서 출전권을 따내서 훈련하는 14일로 연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콜리는 14일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자 살아간다는 것은 늘 그런 기회를 맞닥뜨린다는 것, 살아 있어야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자매와 휴머노이드는 출전권을 획득하기 위해 복회를 찾아온다. 복회는 경주가 불가능해진 말들을 안락사 시키는 수의사이지만 살아있는 말의 체온과 숨결을 느끼고 죽어가는 말의 고통을 통감하는 인물이다. 지독히도 인간 중심적인 행성에서 비인간 동물 역시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학대 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고 외치지만 인간 이기심의 집합장인 경마장에서 복회의 목소리는 묵살된다. 뻔한 결과가 예측됨에도 투테이의 출전 승인을 요청하는 이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막연한 기대를 안고 승인을 허락하고 이들과 연합하여 2주간 투테이가 건강히 지낼 수

24) 박성우, 「기술적 대상과 디지털 밀리우의 정치경제학」, 『문화와 정치』 3권 2호,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6, 165면.

있도록 돕는다.

마방을 관리하는 도민주는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콜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고 동물과 교감하는 법을 알려준 인물이다. 도민주는 기술적 대상으로서 콜리가 전개체적 실제에서 개체화를 추동하는 연합 환경으로서의 개체이다. 은혜가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 마사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도, 외로운 말과 말동무가 되기 위해 힘겨운 외출을 시도하는 은혜의 수고로움을 알고 말과 교감하는 도민주가 있기 때문이다. 도민주는 콜리가 낙마한 후 해체되어 경마박물관에 전시되지 않고 연재에게 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열어주는 인물이며 출전권을 얻은 투데이가 주로에서 흥분하지 않고 천천히 걸을 수 있도록 연합한 환경이다.

우서진은 연재의 사촌 오빠로 방송국 시사기획부 기자이다. 경마장의 승부조작과 관련한 비리를 추적 중이었는데 자매와 휴머노이드의 부탁으로 승부조작 자료를 넘겨 경마장으로부터 투데이의 출전권을 얻어내게 돕는다. 그리고 투데이와 언니, 투데이의 행복을 바라는 휴머노이드 이야기를 듣고 투데이에게 배팅해주는 편의점 점장과 콜리를 수리하는데 도움을 준 연재의 친구 서지수까지. 이들은 모두 기술적 대상을 매개로 투데이를 살리기 위한 연합 밀리유인 것이다.

투데이가 주로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준 복희와 서진을 찾아간 콜리는 자신을 투데이와 함께 호흡을 맞춘 기수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복희에게 투데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어서 고맙다고, 서진에게 투데이를 살릴 수 있는 열쇠를 건네주어서 영웅이라는 감사의 말을 전한다. 금속의 개체가 인간에게 전하는 감사의 인사는 어떤 오묘한 울림을 불러일으키는데 기술적 대상의 노력은 인간을 연합하게 하면서도, 인간에게 지난한 삶속에서도 생에 대한 기투와 희망을 되새김질 하게 한다.

시몽동은 기술과 공존하는 인간의 삶을 주장하며 기술과 자연 그리고 인간 사이에 생겨난 대립이 정당하지 않고 기술이야말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그리고 인간 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소통의 역량을 지닌 존

재라고 말한다. 시몽동은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기술적 대상 고유의 존재방식을 이해하고자 했으며 기술적 대상의 개체화를 인정할 때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주종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적 공진화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²⁵⁾ 그러므로 시몽동의 존재론이자 인식론을 대표하는 개체화론의 핵심은 독립성이 아니라 관계성에 있다. 그리고 비인간 개체와 인간 개체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사회의 모습은 마치 브루노 라투르의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 Network Theory, ANT)을 떠올리게 한다. 라투르는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것이 인간만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 행위자들과 비인간 행위자들 간의 모든 연결 또는 결합의 결과라고 파악한다. 라투르는 자신의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뒷받침하는 한 사례로 『프랑스의 파스퇴르화』를 제시한다.²⁶⁾

라투르는 1988년에 출간한 『프랑스의 파스퇴르화』라는 책에서 파스퇴르가 세균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프랑스 전역에 확장시키기 위해 관련 행위자들을 어떻게 적절히 동원하고 설득했는지를 보여주었다. 과학기술 지식의 생산과 전파 그리고 뒤따르는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과학자나 이해집단과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병원균이나 전동차와 같은 인간이 아닌 생명체나 사물도 행위자로 분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탄저균과 축산업자, 수의사처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을 교섭과 동원의 과정을 통해 일종의 연합체로 엮어내는 과정은 특정 과학지식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²⁷⁾

투데이를 주축에 세우기 위한 기술적 대상과 자매의 파트너십은 설득과 동맹을 무기로 우호적 환경을 넓혀간다. 생명의 호흡을 함께 느끼며 스스로를 투데이의 파트너라고 말하는 휴머노이드, 기계의 통역자이자 조

25) 장문정 「질베르 시몽동의 기술-미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21, 26면.

26) 그레이엄 하먼, 『브뤼노 라투르:정치적인 것을 다시 회집하기』, 김효진 옮김, 갈무리, 2021.

27) 아네르스 블록, 토르벤 엘고르 옌센 지음, 『브뤼노 라투르』, 황장진 옮김, 사월의 책, 2017, 38-39면.

정자인 발명가-기술적 주체, 동물을 유일한 친구로 둔 장애를 지닌 소녀, 경마장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묶이면서도 동물권을 사수하는 수의사, 공익과 생명권 사이에서 생명권을 선택하는 언론인이 만들어가는 연합 환경을 통해 경마장 실험실은 마치 프랑스의 파스퇴르회를 은유하게 된다. 이러한 결합은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도, 정상성의 경계도, 계층의 경계도 넘어서는 힘을 갖는다.

4. 개체 초월적 관계와 정서적 감동

시몽동의 철학은 개체의 발생을 탐구하는 생성의 철학이자 생성의 과정에 멈추지 않고 존재가 어떻게 구조화되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존재와 생성의 융합철학이다. 개체 내 또는 개체 간 존재하는 불일치, 양립 불가능성은 관계 맺음을 통해 구조화되는데 시몽동은 이를 관계의 존재론이라 부른다.²⁸⁾

콜리가 연재의 등에 살포시 손을 얹었다. 연재는 “뭐야?” 하고 물었지만 콜리의 손을 치우거나 몸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래서 콜리는 오래도록, 연재의 진동이 느껴질 때까지 손을 올려 둘 수 있었다. 떨린다. 행복에 휩싸인 연재의 몸이 진동으로 떨렸다. 연재는 살아 있었다. 늘 살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살아 있었다. 무엇이 연재를 이토록 가슴 뛰게 만드는 것일까. 투데이처럼 달리는 것도 아니고 저 작은 화면에 기계를 구상하고 있을 뿐인데.

“투데이가 떨 때와 같아요, 지금.”

“행복해하고 있어요. 투데이가 떨 때처럼 당신도요.”(중략)

28) 황수영, 「시몽동의 관계의 존재론에서 정신적, 집단적 개체화」, 『미술과 교육』 18,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2017, 1면.

“살아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에요. 살아 있다는 건 호흡을 한다는 건데 호흡은 진동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 진동이 큰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에요.” (중략)

“저도 느껴요.”

“저는 호흡을 못 하지만 간접적으로 느껴요. 옆에 있는 당신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져요. 저를 행복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당신이 행복해지면 돼요. 괜찮지 않나요?”²⁹⁾

위의 인용문은 유기체와 비유기체 간의 동적인 관계 맺음을 보여주는 데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공동적 감수성은 바로 생명성에 있다. 하지만 이 생명성은 유기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유기체와 비유기체가 하나의 목적으로 연합할 때 만들어내는 ‘진동’이나 공동의 목표로 정진할 때 함께 나누는 ‘호흡’은 물질 존재의 기반을 넘어선다. 투데이가 주로를 달릴 때 빨라지는 박동과 거친 숨소리, 온몸의 진동은 휴머노이드 기수 콜리의 메모리에 그대로 저장되며 콜리는 이를 “함께 호흡했다”로 느낀다.³⁰⁾ 엄마가 마중 나오지 않은, 비오는 날 방과 후 학교 길에 어린 연재가 타게 된 휴머노이드 들개(다르프)에서 느꼈던 엔진의 피스톤질은 마치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박동처럼 느껴진다.³¹⁾ 서로 다른 작

29) 『천개의 파랑』, 302면.

30) “투데이가 빠른 속도로 달릴 때 콜리는 한 번 더 고삐를 놓고 투데이의 등에 손바닥을 얹었다. 당근을 먹었던 순간보다 더 빠르고 강렬한 진동을 만났다. 콜리가 말 등에 앉아 경주를 진행하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이 생물도 달리기 위해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분명했다. 투데이가 행복해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콜리는 투데이가 행복하다면 자신도 행복한 거라고 정의 내렸다. 투데이의 등에 앉아 달릴 때마다 콜리는 숨을 쉬었고 호흡이 생명의 특권이 라면 콜리는 그 순간만큼은 생명이었으며 생명은 살아 있는 존재라는 뜻이었다. 콜리는 살아 있었다.”(『천개의 파랑』, 28면.)

31) 휴머노이드를 처음 본 것은 비가 내리던 방과 후였다. 열한 살이었나 열두 살이었나. 연재는 결국 가방을 머리에 이고는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길목에서 네 발 달린 휴머노이드를 만났다. 연재는 입과 있던 외투를 벗어 ‘들개’의 머리에 덮었다. 연재는 들개의 등에 탔다. 들개는 다소 거칠지만 안정적으로 빗속을 뛰어가기 시작했다. 연재는 그때 손바닥과 다리에서

동 방식으로 '살아 있음'을 주장하는 개체는 개체 내의 잔존하는 에너지들의 소통을 통해 개체를 초월한다.

시몽동의 개체화론에서 개체 초월성은 생명적 개체화에서 집단적 개체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때 중요한 개념이다. 개체화론에 따르면 생명적 개체화는 일차적이고 심리적-집단적 개체화는 이차적이다. 인간은 생명체로서 일차적이며 개체 초월적 관계로서 이차적 주제일 수 있고, 새로 발명된 기술적 존재는 개체들의 앙상블을 조직화하며 개체 초월적 집단을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시몽동은 인간의 기술적 활동으로서 발명을 존재의 개체성에 머무르지 않고 개체 초월적인 집단성의 수준에서 소통시키는 활동으로 파악한다. 발명이란 기계들이 인간과 함께 살길을 찾아 이루어낸 혼적이자 발명가와 기계가 미래로부터 찾아온 상상의 지휘 아래 결합하여 과거의 잔해인 요소들을 조립하고 새로운 현재를 만드는 일이다. 발명을 통해 인간도 발명이 자신을 넘어서고, 기계도 그 자신을 넘어서나. ³²⁾

연재의 발명품은 대회 전체 2등이라는 성과를 거뒀고 그 아이디어가 과학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채택되어 5년 후 은혜가 소프트 휠체어를 타게 되는 사실은 후일담처럼 전해진다. 우리는 이를 통해 연재가 발명한 소프트 휠체어가 인간-기계 앙상블의 결과이며 기술적 발명이 인간 사회의 윤리적 진화와 연결될 수 있음을 전망한다.

매개체로서의 기술적 개체 콜리는 자신의 파트너 투데이에게 행복함을 선물하기 위해 천천히 걷기를 제안하였다. 관중들의 야유와 욕설에도 자신들만의 속도로 걷던 콜리는 투데이의 질주의 바람을 느낀다. 콜리는 수

들개의 엔진을 느꼈고 사람의 심장박동처럼 움직이는 유압기의 피스톤질을 느꼈다. 들개는 살아있었다. 숨은 쉬고 있지 않지만 살아 있는 지사의 어떤 생명과도 전혀 다를 게 없었다. (『천개의 파랑』, 106-107면.)

32) 강민혁, 「하늘과 땅과 인간과 기계들의 우정」, 『한겨레』, 2020.9.4., <https://www.hani.co.kr>, 접속일 2022.5.23.

리된 자신의 몸체가 이전보다 무거웠으며 낙마의 충격으로 완전히 부서질 것임을 예측하지만 오로지 투데이를 행복하게 하게 해야한다는 존재 자체의 이유에 사로잡힌다. 다시 달릴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게 하기 위해 낙마를 선택한 콜리가 헤아려 본 천 개의 단어와 떠올린 몇 명의 이름들, 콜리의 최후를 콜리의 언어를 빌어 표현하자면 ‘과랑과랑하다.’

순수 개체로서 기술적 개체가 개체 초월적 연대를 조직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시몽동은 정서적 감동에 두고 있다. 시몽동의 기술적 대상은 과학적 합리성만이 아니라 정서적 감동의 차원에서 이해될 때 개체 초월적 관계의 매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 기존의 사회적 규범을 넘어서 기술적 대상들 안에 사회 변혁의 씨앗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 바로 이것이 개체들 사이에 정서적 감동을 통해 전파되며 개체 초월적 집단화를 가능케 할 때 기술성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³³⁾ 기술적 개체와 인간의 연대, 인간-비인간의 앙상블은 결국 안락사를 앞둔 경주마의 생명을 지켜주지는 청원으로 이어져 투데이에게 진짜 초원을 선물하는 계기로 이어진다.

6. 나오며

생명공학의 발전과 그에 대한 인간의 윤리를 탐색한 한스 요나스(Hans Jonas)는 기술이 철학의 대상이 된 이유를 “기술은 인간에 관한 모든 문제-삶과 죽음, 사고와 감점, 행위와 고통, 환경과 사물, 욕구와 운명, 현재와 미래에 침투해 있기에” 철학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³⁴⁾

33) 김재희는 개체초월성을 통한 정서적 감동의 모델로 ‘아이폰’을 설명한다.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처음 들고 나온 아이폰은 단순한 도구의 수준을 넘어서는 탁월한 기술적 대상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아이폰이라는 기술적 개체의 발명이 열어놓은 스마트폰 계열의 기술적 대상들은 기존의 폐쇄적인 사회적 질서와 경계들, 서로 불일치하고 불균등한 사회적 위상들(빈부, 나이, 성별, 지역 등의 격차)을 가로지르는 정보의 소통과 정서적 공감의 내적 공명을 실현하며 새로운 집단적 관계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 김재희, 앞의 책, 52면.

본고는 기술철학적 관점에서 한국 SF의 새로운 동향을 보여주는 젊은 작가 천선란의 2019년 제4회 한국과학문학상 장편소설 부문 대상작 『천 개의 과방』을, 인간과 기계(비인간)의 새로운 관계성에 주목하여 고찰하였다. 기계와 인간의 공존을 긍정하는 시몽동의 기술철학적 사유와 개체화론을 통해 독립된 개체의 존재성이 다층적인 관계망 속에서 생성되고, 양립 불가능하고 불일치하는 것들(인간과 비인간) 사이를 연결하고 소통하는 관계성을 중심으로 사유하였다. 시몽동이 꿈꾸었던 개체 간 상상블은 기술과 인간이 함께하는 서사를 통해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과 다른 새로운 휴머니즘을 꿈꾸게 했다.

인간과 비인간을 매개하는 기술적 개체 C-27의 1막은 동물과 로봇, 두 비인간 개체의 관계를 다루었다면 콜리로 불리는 2막은 개체를 관통하는 인간과 비인간과의 연대가 이루어진다. 기계를 만지고, 부품을 조합하고, 설계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때 가장 빛나는 인간 우연재는 기술적 대상과의 연합(소프트 휠체어)을 통해 발명가-기술적 주체로 거듭난다. 연재가 보여주는 ‘영 어덜트’성은 기술적 상상블을 구축할 줄 아는 새로운 휴머니즘 ‘발명가-기술자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소환하기에 다분히 SF적 성장소설이라 할 만하다.

시몽동의 존재론이자 인식론을 대표하는 개체화론의 핵심은 독립성이 아니라 관계성에 있다. 투데이를 주로에 세우기 위한 기술적 대상과 자매의 파트너십은 설득과 동맹을 무기로 우호적 환경을 넓혀간다. 생명의 호흡을 함께 느끼며 스스로를 투데이의 파트너라고 말하는 휴머노이드, 기계의 통역자이자 조정자인 발명가-기술적 주체, 동물을 유일한 친구로 둔 장애를 지닌 소녀, 경마장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묶이면서도 동물권을 사수하는 수의사, 공익과 생명권 사이에서 생명권을 선택하는 언론인은 기술적 대상을 매개로 투데이를 살리기 위한 연합 밀리우인 것이다. 순수

34) 한스 요나스. 『기술 의학 윤리:책임 원칙의 실천』, 이유태 옮김, 숲, 2005.

개체로서 기술적 개체가 개체 초월적 연대를 조직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시몽똥은 정서적 감동에 두고 있다. 기술적 개체와 인간의 연대, 인간-비인간의 양상불은 결국 안락사를 앞둔 경주마의 생명을 지켜주자는 청원으로 이어져 투데이에게 진짜 초원을 선물하는 계기로 이어진다.

본 논문은 과학소설이 그리는 미래사회의 혁신적 기술에 대한 찬부(贊否)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기술은 이미 도처에 있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상들에, 우리가 행하는 추론들 속에, 그리고 심지어 우리 신체의 자세 속에도 있다.³⁵⁾ 기술 발전의 역사와 함께 주입된 의인화의 공포와 조작의 불안을 견어내면 우리는 기술과 새로운 관계 맺기를 할 수 있으며 해야만 한다. 발전된 기술공학의 시대를 누리는 현대인에게 기술의 과함도, 기술의 없음도 디스토피아이긴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이다.

35) 장 이브 고포, 『기술철학:테크노월드 속의 도구적 인간』, 황수영 옮김, 한길사, 2003, 15면.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천선란, 『천 개의 파랑』, 허블, 2021.

2. 단행본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아카넷, 2017.

송성수, 『기술의 역사』, 살림, 2009.

이광석 외, 『현대 기술·미디어 철학의 갈래들』, 그린비, 2019.

그레이엄 하먼, 『브뤼노 라투르: 정치적인 것을 다시 회집하기』, 김효진 옮김, 갈무리, 2021.

세릴 빈트, 『에스에프 에스프리』, 진행선, 정소연 옮김, 아르테, 2019.

시몽동,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 김재희 옮김, 그린비, 2011.

시몽동,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 황수영 옮김, 그린비, 2017.

아네르스 블록, 토르벤 엘고르 옌센 지음, 『브뤼노 라투르』, 황장진 옮김, 사월의 책, 2017.

에른스트 카프, 『기술철학 개요: 새로운 관점에서 본 문화 생성사』, 조창오 옮김, 그린비, 2021.

장 이브 고피, 『기술철학: 테크노월드 속의 도구적 인간』, 황수영 옮김, 한길사, 2003.

한스 요나스, 『기술 의학 윤리: 책임 원칙의 실천』, 이유택 옮김, 숲, 2005.

3. 논문

강민혁, 「하늘과 땅과 인간과 기계들의 우정」, 『한겨레』, 2020.9.4.,
<https://www.hani.co.kr>, 접속일 2022.5.23.

강진숙, 「포스트휴먼 담론의 사유와 미학적-윤리적 역량 연구: 시몽동과 들뢰즈, 파타리의 인간-기계 사유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62, 한국언론학회, 2018, 385-414면.

김지혜, 「지구에서 '다름'이 멸종되지 않기를... 천선란 '나인」, 『경향신문』, 2021. 11.12.

리디, 「[천 개의 파랑] 작가 천선란 인터뷰, 나의 글이 누군가에게 울 수 있는 핑계가 되었으면」, 『brunch』, 2020.12.31., <http://www.brunch.co.kr>, 접속일, 2022.5.28.

박성우, 「기술적 대상과 디지털 밀리우의 정치경제학」, 『문화와 정치』 3권 2호, 한양

- 대학교 평화연구소, 2016, 155-173면.
- 박은영, 「성장소설의 서사모형을 통한 황순원 소설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11.
- 배훈식, 「인터뷰 천선란 작가 “학교폭력, 아이 주변 어른들에게는 왜 죄 묻지 않나”」, 『NEWSIS』, 2021.12.12., <https://newsis.com>, 검색일, 2022.4.22.
- 손화철, 「실천철학으로서의 기술철학」, 『포스트휴먼융합인문학 협동과정 연속 콜로키움 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2021.7.12.
- 송석주, 「김초엽, 장류진, 천선란, 31만 명이 꼽은 미래 작가」, 『독서신문』, 2021.8.13., <https://www.readersnews.com>, 접속일 2022.4.20.
- 양윤의, 차미령, 「천선란 소설에 나타난 ‘비인간’의 가능성-페미니즘과 SF의 동맹에 주목하여」, 『현대소설연구』 8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233-262면.
- 오윤주, 「기술 문명 시대 문학의 대응 양상 연구-2000년대 이후 한국 SF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88, 우리말글학회, 2021, 337-371면.
- 유슬기, 「SF계의 경이로운 소문 《천 개의 파랑》 작가 천선란, 하나의 파랑이 되어」, 『topclass』, 2021년 6월호, <https://topclass.chosun.com/>, 접속일, 2022.4.22.
- 이지은, 「위기의 지구에서 빗장bar 옮기기」, 『문학동네』 107호, 문학동네, 561-567면.
- 장문정, 「질베르 시몽동의 기술-미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21.
- 장민지, 「영 어덜트(Young Adult), 청소년과 어른의 경계에선 주체들」, 『시사저널』, 2019.10.28., www.sisajournal-e.com, 접속일 2021.4.18.
- 전우용, 「작가들이 사는 마을 한국 SF 소설의 떠오르는 셋별 ‘천선란」, 『NEWS N BOOK』, 2021.12.24., <http://www.newsbook.com/>, 접속일, 2022.1.22.
- 정진우, 김창훈, 김지숙, 「실과 교과서 ‘생활과 기술’ 단위 발명 교육 내용 분석」,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8, 한국기술교육학회, 2018, 103-122면.
- 황수영, 「시몽동의 관계의 존재론에서 정신적, 집단적 개체화」, 『미술과 교육』 18,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2017, 1-23면.

<Abstract>

SF Bildungsroman and Human-NonHuman Ensemble from a Technological philosophical Perspective

— Focusing on Cheon Seon-ran's *A Thousand Blue*

Jin, sun young

This paper aims to pay attention to the new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machines (non-human) as the subject of the study of Cheon Seon-ran's *A Thousand blue* from the perspective of technological philosophy. Simondon affirmed the coexistence of machines and humans through technology philosophy and individualization theory. Simondon emphasiz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nnecting and communicating between humans and non-humans because independent individuals are created in a multi-layered relationship.

Act 1 of C-27, a technical individuation that connects humans and non-human beings, dealt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animals and robots, while Act 2, called collie, is linked to humans and non-human beings. Human coincidences that shine the most when touching machines, combining parts, and explaining how designs work are reborn as 'inventors-technical subjects' through association with technical individuation. Young Adult, shown by Woo Yeon-jae, is an SF Bildungsroman because it summons the appearance of a new humanism "inventor-human as an engineer" who can build a technical ensemble.

The center of Simondon's theory of individualization is not

independence, but relationship. The partnership between technical subjects and sisters creates an alliance through persuasion. Humanoid, inventor-technical subject, girl with disability with animals as her only friend, veterinarian who protects animal rights, and journalist who chooses life rights are united milieu to save Today through technological objects. Technological objects, human solidarity, and human-non-human ensembles eventually lead to a petition to protect the life of a racehorse ahead of death, leading to an opportunity to present real grasslands to Today.

Key words: Cheon Seon-ran, A Thousand Blue, SF Bildungsroman, Technological philosophy, Simondon, Human-NonHuman, Ensemble

투 고 일: 2022년 8월 9일

심 사 일: 2022년 9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2022년 9월 22일